“부처님 법 만나고 작품은 덤으로 따라왔죠”

‘4기 불교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⑦ 심효빈 추추비니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나락 빠지던 20대 때 불교 만나
순례 등 신행생활로 마음 의지처
매일 일상 속 염불 · 법화경 사경
“불교는 삶…나와 분별도 없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추추비니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심효빈 씨.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나쁜 일만 생기면 환경 탓 남 탓하기 바빴어요. 부처님 법 만나고 오만한 야만심이 하나둘 부서졌죠. 주변 인연들의 소중함을 느끼니 다양한 작품들은 덤으로 따라왔어요.”

심효빈 추추비니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는 처음부터 대표가 아니었다. 미술 전공 후 20대 초반부터 디자인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박봉에 열악한 환경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잦은 이직을 하며 세상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커져만 갔다. 나락으로 빠져들 때, 심 대표를 잡은 건 다름 아닌 불교였다.

버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딸에게 울산 황룡사 신도인 어머니가 구법순례를 제안했다. 20대 시절 불안한 미래에 대한 방황을 겪던 심효빈 대표는 구법순례를 통해 부처님을 만났다. 이후 황룡사를 스스로 찾아갔고, 경전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곤 평온함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이후 꾸준히 법당을 찾았다. 주지 황산 스님의 지도에 따라 마음을 다스리며 매일 천수경을 독송하고 금강경을 사경했다. 밴드를 통해 예불에 참여하며 마음의 의지처를 찾았다.

김포며 평창이며 전국 곳곳의 성지를 순례하며 신행생활을 했다. 불교공부를 하면서 생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남편 성과 자신의 이름 끝자를 따 ‘추추비니’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접 만든 디자인 작품들로 박람회와 페스티벌에 참여, 인기를 끌기도 했다. 관공서와 기업 각종 홍보물과 포스터, 팸플릿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 의뢰가 들어왔다. 자현 스님과 우연히 인연이 닿아 월정사의 각종 행사 홍보물 작업에도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었다.

바쁜 일상이지만 신행생활에도 게으름이 없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염불하며 법화경 사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일상에서 하는 수행 모습을 촬영,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는 일에도 열심이다. 이유는 단 하나. 많은 이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싶고, 일상의 수행법을 보고 누구든 따라 해 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바쁜 삶으로 종교생활을 꿈꾸기 어려운 MZ세대 청년들을 위해 삶에 어떻게 불교수행을 적용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누구보다 눈코 뜰 사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심효빈 대표는 최근 또 일하나를 더 벌였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모집한 불교크리에이터 4기에 도전한 것. 당당히 크리에이터가 된 심효빈 대표는 일상이 담긴 브이로그로 다큐멘터리 형식을 차용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일상브이로그에서는 일하며 생활하며 염불과 사경, 명상 등 불교수행을 어떻게 적용하며 삶을 더 윤택하게 살아가는지를 담고 있다.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선지식을 친견한 후 진솔한 수행자



추추비니 디자인 작품들.

추추비니 디자인 스튜디오
- 홈페이지 : choochoobini.com
- 유 튜 브 : www.youtube.com/@choochoobini88
- 인 스 타 : www.instagram.com/choochoo_bini

이야기를 브이로그에 담아내고 싶다. 이야기를 통해 받은 영감으로 굿즈를 제작하는 과정도 공개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민감한 부분이라지만 저는 제 작품이 어디서든 잘 활용되길 바라요. 그것이 진짜 보시죠. 이를 통해 불자들과 소통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굿즈 판매 수익으로 다 같이 사찰에 보시하는 이벤트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심효빈 대표는 “불교크리에이터가 됐다고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기존 SNS 채널에서 부처님과 불교 이야기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터 기간이 지나도 불자로서 신행을 이어갈 것이다.

불교는 삶이고 나와 분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심효빈 대표. 그는 “부처님은 힘들 때 기댈 곳이 됐고 지금은 꿈을 향해 가는데 힘이 됐다”면서 “이제는 이 좋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일에 진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금사찰 수국사, 상월결사 정신 잇다

11월 4일 금강경 21일 기도 입재
교구장 호산 스님 초청 법문
“대학생 포교 모두 함께하자”


11월 4일 수국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우리말 금강경 21일 기도 입재 및 호산 스님 특별법문.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포교를 기치로 내세운 상월결사 정신을 황금사찰 서울 수국사가 잇기로 했다.

수국사(주지 보관)는 11월 4일 경내 대보전에서 ‘우리말 금강경 21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하고,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인 호산 스님을 초청해 특별법문의 시간을 마련했다. 호산 스님은 최근 봉선사 주지 취임 전까지 약 9년간 수국사 주지를 맡아 가람수호에 매진한바 있다.

이날 법상에 오른 호산 스님은 신임 주지인 보관 스님과 수국사 대중이 기도 입재로 주지 진산식을 대신한 점을 격려했다. 이어 스님은 4년 전 위례 신도시에서 상월선원 천막정진 당시 힘을 보태준 수국사 사부대중에 감사를 표하고, 청년불교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수국사도 함께 뜻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호산 스님은 “인도순례가 끝나는 날 상월결사 회주스님께서는 지장보살의 원력에 빗대 전법의 중요성을 설하셨다”며 “청년불자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불교를 믿지 않는다면 황금법당은 지금 인원의 10분의 1도 채우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월결사가 대학생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 정신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면서 “신임 주지스님과 수국사 신도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 전법의 길을 떠나자”고 주문했다.

호산 스님은 또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천막정진 당시 글로 남긴 게송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을 추니 수미산이 사바세계로다’를 읊은 뒤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황금법당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부처님을 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은 호산 스님이 일궈놓은 다양한 수행문화를 잘 받들어 뜻을 잇겠다고 다짐했다. 보관 스님은 “교구장스님께서 문화 · 포교 · 기도 모든 면에서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된다”면서도 “무언가를 따로 더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어져온 수행기도, 어린이법회, 합창단 운영 등에 보다 신경 쓰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호산 스님과 보관 스님을 비롯해 법회에 함께한 사부대중은 상월결사의 슬로건인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삼창하며 전법 의지를 다졌다. 법회에는 총무원 문화부장 혜공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 교육부장 덕림 스님, 불학연구소장 법정 스님, 포교연구실장 문종 스님, 중앙종회의원 현무 · 원각 · 해량 · 법륜 스님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故 강보경 노동자 죽음 진상규명 · 책임자 처벌”

사회노동위, 11월 8일 기도회
DL이앤씨 회장 공개 사과 촉구



11월 8일 진행된 故 강보경 노동자 극락왕생 기원 기도회.

올해 8월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故 강보경 노동자 죽음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DL이앤씨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기도회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사노위)는 11월 8일 서울 종로구 DL이앤씨 본사 앞에 마련된 추모분향소에서 기도회를 봉행하고 강보경 노동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사노위는 10월 11일 ‘DL이앤씨 산재사망 노동자 故 강보경 추모위령재’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번 기도회를 마련,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

강보경 노동자는 올해 8월 11일 DL이앤씨의 부산 연제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6층에서 창호 교체작업을 하다 20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강 씨는 DL이앤씨 하도급업체 KCC 소속으로 일했다. 이번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7번째 중대재해이며, 강 씨는 8번째 희생자다.

8월 말 통영에 살던 고인의 어머니 이숙련씨와 누나 강지선 씨는 원청인 DL이앤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 유가족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DL이앤씨 회장 공개 사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족 배상을 요구하며 출근 · 점심 · 퇴근 시간에 맞춘 피켓 시위와 농성을 펼치고 있다.

기도회에 앞서 사노위 위원 원경 스님은 “DL이앤씨는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외면 · 무시해선 안 된다”며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에 응할 때까지 조계종 사노위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보경 노동자 어머니 이숙련 씨는 “아들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사과하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아들을 포함해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더 이상은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도회는 원경 스님의 집전으로 20분 가량 이어졌다. 기도회를 마친 스님과 유가족은 ‘사망사고의 진상을 공개하고 유족에게 사과하라’ ‘내 아들 살려내라’ ‘산재사망의 진실을 밝혀라’ 등의 피켓을 들고 DL이앤씨 본사 인근을 돌며 재차 강보경 노동자 죽음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내영 기자

제20회 대원상 출가 대상에 ‘상월결사’

진흥원, 11월 6일 수상자 발표
오는 11월 16일 시상식 개최



(사)상월결사 이사장 자승 스님이 3월 23일 서울 조계사에 열린 인도순례 회향식에서 회향 말씀을 하고 있다.

제20회 대원상 출가 부문 대상에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선정됐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제20회 대원상 심사위원회의를 통해 부문별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11월 6일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출가 부문 대상에는 사단법인 상월결사(이사장 자승)가, 특별상은 묘장 스님(더프라미스 이사장)이 각각 수상자(단체)로 선정됐다.

진흥원은 “상월결사는 2019년 11월 천막정진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 친절한 불교’를 위해 전국적으로 전법 운동을 확산시켜왔다”면서 “청년 불교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전법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대학생 포교 활성화의 전진기지로서 현대적인 포교 단체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불교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인 묘장 스님은 일찍이 국제 재난에 선도적으로 자비행을 펼쳐왔으며, 사회복지와 지역포교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가 부문 특별상은 백성욱 박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백성욱연구원(이사장 정천구)이, 장려상은 신병훤 교법사(대전 보문고 교법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특별정진상 부문에는 고우 스님(미국 콜롬비아대 인지과학 · 인권학 재학)과 수진 스님(일본 고마자와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을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부터 신설된 특별정진상은 해외 대학이나 수행센터에서 정진하는 조계종 소속 스님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으로, 2명의 스님을 선정해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3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진행된다. 수상단체와 수상자에는 상패와 함께 대상은 3000만 원, 특별상은 1500만 원, 장려상은 10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학부모, 베트남 유학생에 장학금

건학위 ‘미래불자 장학’에
1000만원 장학기금 전달해
베트남 유학생 10명 혜택



동국대 재학생 학부모인 김대암 우진제약 대표가 동국대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1월 8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수여식에는 우진제약 김대암 대표와 부인 김성경 씨, 동국대 불교학부에 재학 중인 자녀 김미현 학생이 참석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장환영 학생처장, 베트남 유학생 장학생들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건학위원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사업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최근에는 장학의 범위를 확대해 북한출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인도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왔다. 이번에 베트남 유학생 학부생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제도 시행 이후 사찰이나 스님이 아닌 재가자가 기부하는 첫 번째 사례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본국을 떠나 타국에서 해외생활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이번 장학금이 매우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며 “이번 장학금을 토대로 동국에 대한 사랑, 한국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베트남 유학생 후배가 장학금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학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암 대표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총장님께 감사드린다. 52회째 접어든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제도가 앞으로도 번창하기를 기원한다”며 “오늘 인연이 된 베트남 유학생들의 감사 편지를 읽어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내년에도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부이티후엉린(국제통상학과 4학년)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우진제약 김대암 대표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부이티후엉린 학생은 “학업에 집중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 아르바이트와 병행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을 계기로 저의 목표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심 도문 대종사, 제자 17명 계맥 전수

(재)대각회, 백용성 스님 탄신 160주년 맞아 전계식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선 백용성 스님의 손상좌인 불심 도문 대종사가 대은 율사로부터 이은 계맥을 제자들에게 전했다.

도문 대종사는 10월 26일 서울 대각회에서 열린 ‘백용성 조사 탄신 160주년 기념 지리산 칠불선원 대은계맥 전계식’을 봉행하고, 조계종 호계원장인 보광 스님 등 17명의 제자에게 서상수계 계맥을 전했다.〈사진〉

조선시대 한국 계맥의 중흥조 대은 낭오(1780~1841) 율사의 서상수계 계맥은 금담, 초의, 범해, 선곡, 용성, 동헌 율사에 이어 도문 대종사를 제8대 전계 율사로 이어져왔다.

도문 대종사는 전계식에서 대은 율사로부터 이어져온 전통 계맥을 호지하고, 정법안장의 혜명이 단절됨이 없도록 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했다. 전계식은 전계의식과 도문 대종사의 법어, 장산 도업 대종사의 축사, 9대 전수사 대표 보광 스님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불심 도문 대종사, 장산 도업 대종사를 비롯해 보광 스님 등 17명의 전계 제자들과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 조계종 어산종장 법안 스님,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종로 대각사 주지 종원 스님 등이 함께 했다.

윤호섭 기자